

《선조행장(先朝行狀)》에 대하여

원사 교수 박사 김영환

1. 서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력사학, 민속학, 고고학부문에서는 우리 인민이 창조한 우수한 민족문화유산들을 더 많이 발굴고증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우리 나라의 역사를 외곡 날조하는 행위에 학술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이 창조한 우수한 민족문화유산가운데는 문헌자료들도 있다.

선조들이 남겨놓은 문헌들가운데는 활자본도 있고 목판본도 있으며 수사본도 있는데 그것이 담고있는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이미 잘 알려진 문헌도 있으며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고 그대로 묻혀있는것도 있다.

《선조행장(先朝行狀)》(원전의 표기로는 《선묘행장(先朝行狀)》으로 되어있음.)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민족고전문헌의 하나이다.

《선조행장》은 2권 1책으로 된 순국문으로 씌어진 수사본으로서 조선봉건왕조시기 왕궁의 비원(秘苑)에 있던 락선재(樂善齋)에 소장되어있었던것인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그곳에서 찾아내어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다. 그 수사본^{*1}은 지금 조선민속박물관에 보관되어있다.

^{*1} 이 수사본은 유감스럽게도 첫장의 첫머리가 손상되고 마감의 몇장이 떨어져나간 흠집이 있음.

당시 높은 량반관료였던 《선조행장》의 필자 리경석(李景奭)(1595—1671)은 광해군을 쫓아낸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나게 된 필연성과 그 경위 그리고 그 《정당성》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고있다.

《선조행장》을 통하여 당시의 구체적인 역사적사실과 인조반정의 전후사연에 대한 일정한 이해를 가지게 된다. 그뿐만아니라 17세기에 왕궁에서 쓰이었던 궁중어를 비롯하여 당시 조선어의 어휘, 문법 등에 대한 자료도 있어 조선어사연구에서도 의의가 있다.

2. 본론

《선조행장》이 담고있는 기본내용은 인조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그 역사적필연성을 강조한것으로 일관되어있다.

조선봉건왕조 14대왕 선조(宣祖)의 계비인 인목대비(仁穆大妃)가 아들 영창대군(永昌大君)을 낳게 되자 서자인 15대왕 광해군(光海君)은 장차 자기 아들과 영창대군사이에 있게 될 왕위계승문제를 두고 위구심을 가지게 되면서 인목대비와 대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613년에는 드디어 정치적사변인 계축옥사(癸丑獄事)가 터지게 되었다. 광해군은 인목대비의 아버지, 오라비와 아들인 영창대군까지 처형하는 참극을 빚어냈으며 또 인목대비는 10년간이나 서궁(西宮)에 유폐되는 비극을 겪게 되었다.

그 역사적사실에 대해서는 결에서 직접 보고듣고 겪은 내인들이 자세히 기록한 《계축일기(癸丑日記)》^{*2}에 담겨져있다.

^{*2} 비원의 락선재에 있던 《계축일기》의 원본은 분실되고 지금은 《조선력대너류문집》에 수록된 영인본이 전해지고있을뿐임.

《계축일기》는 일찍부터 잘 알려진것으로서 그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의 역사적사실을 취급한 《선조행장》에 대해서는 그 존재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고있었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졌던 《계축일기》와는 달리 같은 역사적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정치적편을 가진 량반관료가 썼다는 점에서 《선조행장》의 사료적가치가 주목을 끌게 되었다.

광해군의 폭정이나 인조반정과 관련한 역사적사실을 자세히 리해하기 위해서는 《계축일기》와 함께 《선조행장》에 대하여서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하는것이다.

《선조행장》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첫머리에서는 인조(仁祖)^{*3}의 부모와 그 출생경위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인현왕후(仁憲王后) 구씨(具氏)가 모친인 평산부부인 신씨의 도움으로 순산하였는데 태어난 아기(인조)가 《턴즈와 의뢰 비범호고》^{*4} 그의 오른쪽다리에는 사마귀가 많이 났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3} 인조는 선조왕의 다섯째 아들인 정원군(定遠君)의 아들 룡양군(綾陽君)임.

^{*4} 《천자(天資)》는 《천품(天稟)》이라고도 하는데 타고난 기품을 말하며 《의표(儀表)》는 절모습을 말하는것이니 《비범하다》는것은 그것이 뛰어났다는 말임.

선조왕이 직접 갓난애기를 보고 기특하게 여기면서 이 아이(인조)는 한 고조(漢 高祖)의 상이니 루설하지 말라고 하였다.

두세살이 되자 곧 궁중에서 자라게 된 아이(인조)는 놀음놀이를 즐기지 않고 웃음과 말이 적어 선조왕의 은권과총(恩眷過寵)^{*5}을 받는것이 날로 더해지고 의인태비의 사랑 또한 더욱 깊어만 갔다.

^{*5} 군주의 정이 어린 극진한 대우와 지나친 사랑을 이르는 말임.

더우기 선조왕이 그 아이(인조)의 어휘(御諱)와 함께 소자(小字)^{*6}를 다 직접 지어주니 광해군이 그 말을 듣고 좋아할리가 없었다.

^{*6} 어휘는 어명(御名)이며 소자는 아명(兒名)을 이르는 말임.

대여섯살때부터 선조왕이 직접 글을 가르치고 아이자신이 공부에 더욱 힘써 날로 총명해졌다. 아이의 총명함이 알려지게 되자 선조왕이 더욱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하였다.

선조왕은 손자(인조)가 만기(萬機)중의 전일(全一)치 못할가^{*7} 크게 넘려하여 외삼촌인 룡해군 구성에게 보내여 글을 배우게 하였다. 그 아이(인조)는 학문을 스스로 힘써 배우면서도 사촌들사이에서 크게 내색하지 않고 겸손하였다.

^{*7} 《임금으로서 여러 정사들을 잘 처리하지 못할가.》의 뜻임.

정미년(1607년, 선조 40년)에 가자(加資)^{*8}로 룡양도정을 명하고 봉군(封君)^{*9}을 하였는데 다 제도와 공으로써 한 일이며 한갓 폐사규례로 한것이 아니었다.

*8 《가자》는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이상의 품계를 주는것을 이르는 말임.

*9 《봉군》은 임금의 적자를 대군으로, 후궁왕자인 서자를 군으로 봉함을 이르는 말임.

이처럼 《선조행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비범출중》하였던 인조를 극구 찬양함으로써 인조반정의 《정당성》을 근거지으려고 하였다.

본래 서자인 광해군은 아버지인 선조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는데 선조왕의 계비인 인목대비(仁穆大妃)가 적자인 영창대군(永昌大君)을 낳게 되자 자기 왕위가 위태롭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항상 대군을 경계하고 왕위에 오른 다음에는 자기 아들인 동궁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면서 언제나 불안해하였다.

이처럼 광해군의 불안이 겹쌓이는 속에 설상가상으로 같은 항렬인 원종(元宗)에게 아들이 생겨나고 그 아들이 선조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자 원종에 대한 시기심이 심하게 되었다. 원종은 그 화가 장차 자기에게 미칠까 걱정하였는데 그의 아들인 룡창군(綾昌君)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자 그만 자리에 눕게 되었다. 병환이 위급하여 모두가 지성을 다하였으나 그는 종시 숨을 거두고말았다.

한편 대비(大妃)의 완강한 성격으로 하여 광해군은 영창대군과 대비가 자기를 위협하는 적수로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력사에 계축옥사(癸丑獄事)라는 참변이 일어나게 된다.

광해군은 자기의 적수들을 무참히 제거하였을뿐아니라 정사도 돌보지 않고 백성들에게서 취렴(재산)을 탐내어 거두어들이는것)하기만을 일삼았다. 토목공사도 매해 그치지 않고 하다나니 백성들의 집을 허문것이 천여채나 되었다.

《선조행장》에서는 광해군의 포악한 행위에 대하여 《모후*10를 유폐하고 골육을 도륙하며 대옥을 나직히*11 설니 죽는 재 날로 빠히논디라. 음표흔 형실을 다 헤디 못홀러라》라고 서술하고있다.

*10 모후는 선조왕의 계비인 인목대비(仁穆大妃)를 가리킴.

*11 《나직히다》는 없는 죄를 엮어서 꾸며 만드느것을 이르는 말임.

광해군은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하고 영창대군을 살해하는 패륜행위까지 한데다가 정사 또한 정도(正道)에서 벗어나니 그 흉악한 형실을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런 기막힌 형편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것이라고 걱정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선조행장》에서는 《상이 번더의 겨오서 비출 덩고 자취를 곱초와 한가히 겨오시나 늘거 그 처딘줄을 설위히오시고 종새 업더딜 일을 민망이 너기오서 발란반정(어즈러운거슬 다스리고 정흔디 도라가랏 말)으로써 괴약을 삼스오시더라》라고 서술하고있다.

《선조행장》에서 《상》이라고 한것은 인조를 가리키는 말이다. 인조는 일체 내색을 하지 않으면서 광해군의 학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어지러운것을 바로잡고 옳은 길로 나가는 발란반정》을 기약하게 되었다.

《어지러운것을 바로잡고 옳은 길로 나가는》일에 많은 공신들이 가담하게 되었다. 《평성부원군 신경진(申景鎭), 능성부원군 구굉(具宏), 청운군 심명세(沈命世), 능천부원군 구인후(具仁厚)》 등이 서로 힘을 합쳐 돕기로 하고 《녕의정 김류(金瑬), 연평부원군 리귀(李貴), 녕의정 김즈점(金自點), 녕의정 최명길(崔鳴吉), 완풍부원군 니서(李曙), 녕의정 홍서봉(洪瑞鳳), 우의정 양유(張維)》 등이 비록 언약은 하지 않았으나 함께 안팎으로 호응하였으며 문무의 모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분연히 《정의》를 위하여 들고일어났는데 물구름을 모은듯 하였다.

서궁에 유폐되었던 인목대비가 나오니 인조왕이 침전을 향하여 재배하고 곡을 하였으며 근신들 역시 모두 곡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른바 인조반정은 성공하고 광해군의 정권은 허물어지고말았다. 이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것이 바로 《선조행장》인것이다.

한편 인목대비에게 속한 내인들이 겪은 고난의 역사를 기록한것이 《계축일기》이다.

《계축일기》는 계축년에 있었던 사변이 인목대비와 광해군의 대립에서 일어난것임을 서술하면서 영창대군을 참혹하게 잃은 인목대비가 《하늘아 내 모습 죄를 지었관디 하늘이 이리 싫게 하시노고》하고 통곡하는 장면에서 최절정을 이루고있다.

광해군이 벌려놓은 계축옥사, 대군살해, 대비의 서궁유폐 등을 내인의 시각에서 기록한것이 《계축일기》라면 이러한 참사의 결과에 일어난 인조반정의 필연성을 량반통치배들의 관점에서 서술한것이 《선조행장》이다. 그리하여 《계축일기》와 《선조행장》은 당시의 역사적사실에 대하여 호상 보충하는 기록들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선조행장》과 《계축일기》는 인조반정이라는 정치적사건이 성공할 때까지의 복잡한 과정을 리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점에서 쌍벽을 이루는 문헌들이라고 할수 있다.

당시의 모든 사변들은 사실상 사색당쟁이 빚어낸 비극이었다.

계축옥사*¹²는 리이첨(李爾瞻)을 중심으로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인파가 영창대군을 옹립하려고 획책한 반대파인 소북인파를 배제하기 위한 책략에서 발생한 비극이었다.

*¹² 계축년에 있었던 참사를 가리키는 말.

《계축일기》에서 보듯이 본래 광해군은 선조가 사망한 후 대비로부터 계자(啓字), 새보(璽寶), 마패(馬牌)*¹³를 넘겨받음으로써 겨우 왕위에 오르게 된것이다.

*¹³ 啓字는 《啓》자가 들어간 인감, 璽寶는 왕의 존호가 들어간 인감, 馬牌는 공무로 지방에 출장가는 관리가 역마를 사용할수 있도록 주는 패.

이처럼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세력을 회복한 대북인파는 아무 관계도 없는 박응서(朴應犀)로 하여금 소북인파의 영창대군옹립계획을 고발하게 함으로써 대비의 아버지와 오라비, 아들 영창대군을 살해하도록 한것이다.

계축옥사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병폐의 하나였던 사색당쟁의 결과에 일어난것처럼 인조반정도 역시 당쟁의 산물이었다.

1623년에 일어난 인조반정은 서인파가 대북인파와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새로 왕자리에 올려앉힌 권력싸움이였다.

인조반정이 당시 량반통치층안에서 벌어진 추악한 권력싸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잡은 통치배들은 저들에 의한 왕위교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반정》이란 이름을 달아 인조가 왕이 된것이 그 무슨 《그릇된》정치를 《바른》길로 돌려세워놓은것처럼 과장하여 선전하였다.

《선조행장》은 인조반정의 필연성을 반정참가자들의 립장에서 기록한것으로서 시대적, 계급적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당시의 정치적사변들을 리해하는데 일정한 참고로 될수 있다.

한편 《선조행장》은 언어사연구를 위한 소중한 사료로도 되고있다.

우선 《선조행장》에는 어음론적으로 주목되는 자료가 있다.

○ 명록년 후의 부마와 밋 종실 즈네 피로히니

이것은 17세기까지도 《ㄷ, ㄷ》이 《ㅣ》앞에서 구개음화된것이 아니라 제 음가대로 발음되었음을 보여주는것만큼 《ㄷ, ㄷ》구개음화는 이 시기에 진행되지 않았던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ㄷ, ㄷ》과 《ㅌ, ㄷ, ㅌ, ㅌ, ㅌ, ㅌ》와의 결합도 15세기와 다름없이 쓰이고 있었다.

- 황데 릭서와 고명을 느리와
- 툼봉ㅎ을 청ㅎ디
- 말을 취ㅎ미로다

이것은 이 시기까지도 15세기의 어음현상의 적지 않은 특징이 변함없이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필자가 착취계급출신인것만큼 인민대중의 언어생활에서 나타나고있는 입말에서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보수적언어관습을 따른 결과일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선조행장》에는 문법사적견지에서 주목되는 자료도 반영되어있다.

우선 격범주와 관련하여 본다면 주격토의 쓰임에서 개음절명사의 주격형태는 례외없이 주격토 《ㅣ》를 말뿌리와 합쳐서 표기하고있는 점을 들수 있다.

- 훼 장춧 불츙ㅎ디라
- 의궤 비범ㅎ오시고
- 혹진 만히 겨오시더라
- 도감이라 일궜는 재 날로 빠히고

그런데 주격토의 사용에서 개음절말줄기로 된 명사끝모음과 《ㅣ》를 겹쳐쓰고있으나 극히 부분적으로 《가》가 나타나고있는것이다.

- 성회 출천ㅎ시대(성호 + ㅣ)
- 총ㅎ기가 비록 여려오나(총ㅎ기+ 가)

비록 한곳에서 나오고있으나 주격토 《가》가 나타나고있는것은 특별히 주목할만 한 일이다.

주격토 《가》의 쓰임에 대하여 현재 알려진 자료들가운데서 가장 오래된것은 정철의 어머니 안씨의 편지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 촌 구드리 자니 빈가 세니러서 즈로 돈니니

여기서 《빈가》의 《가》는 《ㅣ》로 끝나는 명사말줄기인 《빈》뒤에 결합되어있는데 《선조행장》의 경우에도 《총ㅎ기가》와 같이 《ㅣ》로 끝나는 명사말줄기뒤에 《가》가 쓰이고있다.

주격토 《가》는 알려진 확실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6세기 후반기에는 존재한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출현조건은 《~ㅣ》의 뒤인것으로서 그 점에서 안씨의 편지와 《선조행장》의 경우는 일치하고있다.

이것은 《~ㅣ》의 뒤에 쓰이던 주격토 《가》의 쓰임이 점차 보편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주목되는것은 존경토와 시태토와의 배열순서문제이다.

15세기국문문헌에 의하면 시태토 《더》는 존칭토 《시》의 앞에 놓여있었다.

- 遮陽가 세쥬 네도 잇더신가(《룽비어천가》 88장)
- 바미도 세 뽈 說法ㅎ더시다(《월인석보》 2권 27장)

그런데 《선조행장》에서는 《더》의 위치가 존경토의 뒤자리로 바뀌고있다.

○ 에엿비 너기오서 기르오시더니

이처럼 《선조행장》은 《더》의 문법적추상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그 위치가 위치토쪽으로 옮겨갔음을 보여주고있다.

시태로 《더》가 자리토에로 가까이 가는 변화는 《더》의 문법적추상화가 점차 심화되는데 따르는 변화로서 《선조행장》의 언어가 15세기에 비하여 점차 현대어에로 접근하여감을 보여주는 변화라고 할수 있다.

이처럼 《선조행장》은 17세기의 조선어를 반영하고있는 점에서 조선어력사연구에서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시 사람이 직접 쓴 수사본으로서 자기들이 쓰고있는 말은 그 어떤 가식이나 가공도 없이 그대로 써놓은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선조행장》의 언어는 15세기이후 변화된 조선어의 양상을 보여주고있는 점에서 언어사적가치를 가지고있다고 할수 있다.

《선조행장》에는 그밖에 어휘론적으로 주목되는 자료도 적지 않게 나오고있다.

○ 밋브디 아니햐야 = 믿음직하지 아니하여

○ 새배 다듯도록 = 새벽이 다 되도록

3. 결 론

이 글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민족문헌유산의 하나인 《선조행장》의 가치를 소개할 목적에서 집필하였다.

《선조행장》은 해당한 력사적사실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뿐만아니라 언어사연구를 위해서도 의의를 가지는것으로서 이에 대한 연구를 일층 심화시킬 과제가 제기된다.

앞으로 우리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을 더 많이 발굴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선조행장, 제축일기, 인조반정